

책 포장 하시겠습니까

글 | 백원근(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점문화의 상징-책 포장지

일본의 포장문화는 새삼스런 언급이 불필요할 만큼 발달해 있다. '눈으로 먹는 일본요리' 뿐 아니라 각종 공산품부터 개인의 선물포장에 이르기까지, 일본문화 전반의 걸 꾸밈새에 관한 형식미학과 세심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 감각은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출판과 관련해서 보면 출판사가 책표지에 두르는 띠지, 서점별로 만들어 쓰는 책 포장지가 대표적이다. 마케팅 문구가 적힌 띠지와 책 포장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본 특유의 풍물이다. 해외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일제시대에 이식된 책 포장지나 1990년대 이후 유입된 상업적 띠지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언론과 정부가 벌인 자원절약, 환경보호 차원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결과로 서점의 책 포장지가 거의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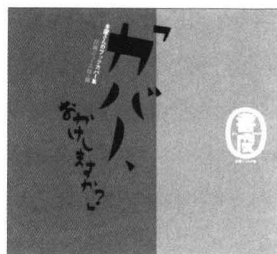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1910년대부터 서점 이름과 고유의 디자인을 인쇄한 포장지가 발달했다. 당시에는 신간서점보다는 고서점의 포장지가 더 세련되었다고 한다. 도예가 토미모토 켄키치(富本憲吉, 1886~1963) 기념관에는 작가가 1916년에 서점 포장지용으로 제작한 목판화가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을 정도이다.

책 포장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서점이 고유의 디자인을 한 것으로 수집가들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받는다. 기타 제지회사에서 만든 기성품에 서점 이름만 찍어 넣는 형태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캠페인 광고용, 결혼정보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회신엽서 첨부 포장지도 있다. 출판사가 홍보용으로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자주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출판사들이 문고본 사이즈로 만들어 서점에 배포하는 것이다. 책이 영화화되거나 각종 특별 전시회 때도 출판사의 기획광고용으로 이용된다.

인터넷시대에 어울리는 책 포장지는 이목을 끈다. 책벌레들이 많이 보는 월간 <책의 잡지(本の雑誌)> 인터넷판 www.webdokusho.com에서 운영하는 출력용 책 포장지가 그것이다. 유명 화가의 책 포장지 '작품' 십여 종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독자들이 책 규격에 따라 자유롭게 프린트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월별 다운로드 순위까지 매기고 있는데, 3월에는 봄기운이 물씬한 작품이 1위에 올랐다.

책 포장지를 구하기 위해 책을 사는 수집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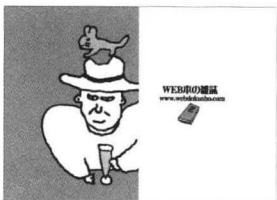
지난 3월 하순, 도쿄의 명물 책방거리인 진보초 소재 고서회관에서는 '서점의 책 포장지(북커버) 전시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출판뉴스사에서 <책 포장 하시겠습니까?>라는 책이 발간돼 잔잔한 화제가 되었다. 책 포장지만을 다룬 첫 책이기 때문이다. 전국 신간서점과 중고서점 등의 책 포장지 가운데 191종을 엄선해 실었다. 여기에는 '서피(書皮)우호협회'가 선정한 '책 포장지 대상' 수상작과 책, 12간지, 문자, 책장, 고양이, 선박, 작가의 휘호, 목판화 등 34개의 소재별로 구분한 전국 각지의 책 포장지들이 엄선 수록돼 있다. 전통과 현대, 서점의 특성을 잘 표현한 것들을 골라낸 컬렉션 감각이 돋보인다. 서점의 개



'서피(書皮)우호협회'가 선정한 북커버대상 20종을 포함해 전국 서점의 책 포장지 191종을 수록한 <책 포장 하시겠습니까?>(2004.12. 출판뉴스사발행).



"책 포장지에 (드러나는) 서점의 개성" 제하의 아사히신문 관련기사 (2005.1.22).



<WEB 책의 잡지> 책 포장지 대표작 및 홈페이지 3월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에 뽑힌 작품.

성을 살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유명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도 적지 않다. 본문 앞에는 책 포장지에 대한 예찬론이 이어지고, 부록에는 책 포장지의 수집과 보존법까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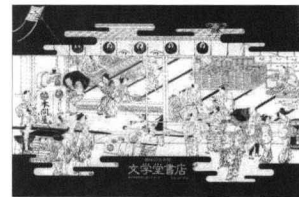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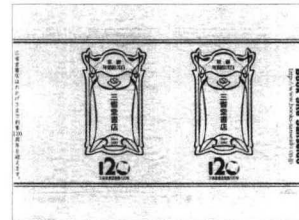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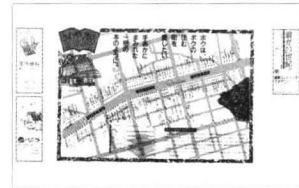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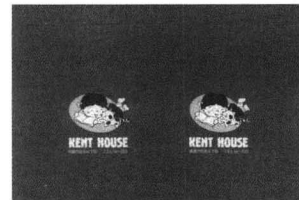
서피는 중국어에서 빌린 말인데, 서피우호협회는 “책이 좋다, 책방이 좋다, 책방의 포장지도 좋다”를 구호로 내건 애서가들의 모임이다. 책 포장지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책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수집가들은 털어놓는다. 이 협회는 1983년 창립된 이래 매년 100여 명이 참가하는 총회에서 인기투표를 통해 대상작을 결정하며, 작년까지 21회째 수상작을 배출했다. 협회보인 〈서피보書披報〉에는 ‘서피학 개설’ 등 각종 연구성과까지 수록돼 있다. 초기 회보에는 ‘vivre책, livre책, libre자유’ 라는 프랑스어의 멋진 운율을 살린 표어가 곧잘 등장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책 포장지의 역할은 무엇일까. 서점 입장에서 보면 책 판매(대금 지불)의 표시로써 그리고 서점의 개성과 얼굴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책의 오손을 막기 위해서, 표지가 햇빛에 그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읽고 난 후 중고서점에 되팔 때까지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한 ‘상품 보호’와 재활용 목적이다. 일본인의 심성과 중고도서 매매 습성, 광고 프로모션 등을 반영한 것이 책 포장지인 셈이다.

그 많던 서점 포장지는 어디로 갔나

과거 우리 역시 책 포장지를 즐겨 썼지만, 지금은 잊혀진 옛 사랑의 그림자처럼 퇴화된 책문화의 기억 속에 묻혀져 있다. 그 많던 장서표藏書票, 지형紙型, 문고본, 중고책방과 인문·사회과학서점, 독서 동아리 등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과 같은, 시대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한마디로 일갈하기에는 미심쩍은 무심한 속전속결 시스템에 주눅든 출판문화가 대비된다. 눈길을 잡아끌기 위한 현란한 책표지 디자인, 자원절약의 대의명분, 투명성을 추구하는 개인과 사회의 개방주의 속에서 사라진 우리 서점들의 책 포장문화. 명동 거리 한복판에 문화의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던 문예서림이나 2002년 월드컵 열기의 뒤편에서 막을 내린 종로서적의 책 포장지가 아련히 떠오른다. 단순히 일본을 본받자거나 사라진 책 포장지 문제가 아니라, 쇠퇴하는 서점문화의 위상에 대한 회억이다.

[자료제공: 館野 哲]



서점의 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책 포장지. 친근감 있게 어린이를 그리거나 서점의 상가 지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설립 기념일이나 전통을 강조한 경우도 있다.

● 이 글을 쓴 백원근은

현재 (재)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출판학회 정회원으로 일본 매스컴업계 주간지 〈文化通信〉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02년 일본 문화청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출판문화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으며 펴낸 책으로는 번역서 《출판광고》 등이 있다.